

하늘 사랑

FEBRUARY 2026
vol. 536

2

cover story

빙박

2025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정유진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하늘사랑

vol. 536

2

FEBRUARY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2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김승민,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마지막 이야기

04

진화하는 연구용 기상관측차량, 뭐가 달라졌을까?



cover story

빙박

2025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정유진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 06 2월, 회고와 준비의 달
- 08 봄을 기다리는 2월 여행, 도심 속 소나무숲 산책로
- 10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날씨와 마음의 속도
- 12 날씨 뒤에 숨은 계산들, 에너지도 날씨를 읽어야 한다

Theme Story

- 14 지구를 사랑한 천리안위성
- 16 지진을 알린다는 마음
- 18 첫 출근날! 복사기도 나보다 똑똑했다
- 20 하늘과 맞닿은 하얀 백록담으로
- 22 만약에 말야, 상상 ON_
지진이 나면 비행기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까?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그 마지막 이야기

퇴직(예정) 예보관과의 특별한 만남 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기상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상청을 떠났지만 날씨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대로인 퇴직예보관과 함께하는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퇴직(예정) 예보관 편'을 소개합니다.



기상청을 퇴직했지만 날씨를 향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 퇴직 후 화물차 기사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일기도 그리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바로 저희가 기상청 유튜브 MC로 어렵게 섭외한 강연구 전 예보관입니다. 🚛☀️

지난 1년 동안 러닝, 사진, 낚시, 양봉업, 프로야구 등 날씨와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 각자의 일상 속에서 날씨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상청의 다양한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상청을 떠난 '퇴직 예보관'의 시선이었기에, 그리고 더 이상 기상청 직원이 아니었기에, 한층 더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편은 지난 여정의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특별히 기획되었습니다. 😊

바로 퇴직 예보관이 또 다른 퇴직 예보관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퇴직은 제가 선배입니다~"라는 농담과 함께, 퇴직 4년 차인 강연구 MC가 2026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이신 허진호 전 총괄예보관을 만나 뵙었습니다. 허진호 전 총괄예보관은 따뜻한 마음과 예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오랜 시간 많은 기상청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아오신 분인데요. 35년 동안 예보 업무에 헌신해 오신, 그야말로 '예보 바라기'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



예보 바라기, 허진호 전 총괄예보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웃음꽃이 피어난 두 분은 예보 현업실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허진호 과장님의 마지막 출근일에 해바라기꽃을 들고 찾아갔던 강연구 사장에 대해, 허 과장님은 능력 있는 후배의 퇴사가 무척이나 아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평생을 예보관으로 살아온 허진호 과장님의 예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예보는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예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나이와 직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예보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 과장님께서는 항상 편안한 토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으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기상청 직원들이 허 과장님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

허 과장님은 '예보는 평생 공부하며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이제는 그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훌가분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시간 기상청에서 예보 업무와 함께 지내온 시간들에 대한 진한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





추억은 방울방울

인터뷰를 마친 뒤, 두 분은 기상청 서울청사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난히 메뉴판을 오래 살펴보셨는데요. 메뉴를 왜 그렇게 자세히 보셨는지 여쭤보자, 어떤 반찬을 조금 더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

24시간 근무 체제인 예보관들은 점심 순번을 정해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요. 청사 밖으로 나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주로 구내식당이나 개인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예보관의 업무 특성상 기상청 구내식당에는 예보관들만의 작은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새치기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예보관들의 근무 특성이 반영된, 기상청만의 독특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퇴직 예보관님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온 콘텐츠인 만큼, 제작진 또한 마지막 촬영을 마치며 남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강언구 사장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하고 계신 올해의 프로젝트들이 모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편에 특별 출연해 주신 허진호 과장님과 그동안 환승직업에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퇴직예보관의 환승직업〉 시리즈는 마무리되었지만, 기상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26년에는 더욱 유익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갈 예정인데요.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쇼츠로 전달하는 〈생생날씨정보통 ☔〉, 기상청 직원뿐만 아니라 기상 관련 다양한 업무 종사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휴먼다큐 〈기상청 사람들-시즌2 ☺〉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진화하는 연구용 기상관측차량, 뭐가 달라졌을까?

이 진 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용 기상관측차량(이하 기존차량)은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소에서 2012년 12월에 도입하여 10년 이상 재해기상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장기 운용에 따른 차량 노후화, 관측 구조물의 안전 문제, 데이터 정확도 저하, 작업 환경의 비효율성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권고 기준을 충족하고 현장 운용 경험을 반영한 차세대 연구용 기상관측차량(이하 신규차량)을 2024년 12월에 도입하였다. 관측 안정성과 현장 안전 기준을 확보한 신규차량을 소개한다.

관측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기존차량의 상부 구조물은 풍향·풍속계(지상고* 3.1m), 데이터로거** 등을 포함한 고정형 마스트*** 형태로, 이동 중 높이 제한 시설물과의 충돌로 인한 파손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했다. 관측 장비의 손상과 운용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은 신규차량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 지상고: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데이터로거: 여러 센서의 자료를 관리하는 자료처리부 ***마스트: 풍향·풍속 등 센서가 부착된 구조물

① 자동 접이식 마스트 리프트 시스템 도입

신규차량에는 자동 접이식 리프트 형태의 마스트를 적용했다. 이동 시에는 마스트를 접어 차고를 지상고 2.45m(기존 대비 65cm 감소)로 낮춰 안전하게 운행하고, 관측 시에는 이를 펼쳐 지상고 3.25m(기존 대비 15cm 증가)로 높여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관측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게 되었다.

② 복사열 및 전도열 최소화를 위한 기온 센서 수평 이격

지난 2023년, 기존차량을 이용한 비교관측 시 차체의 복사·전도열이 기온 센서에 영향(가열·냉각)을 미쳐 관측 정확도가 저하됨을 확인했다. 이에 기온 센서를 차체에서 수평으로 90cm 이격시키는 구조물로 개선하고, 주야간 기온 편차 감소를 확인하여 이 구조물을 신규차량에 설치했다.



파손된 기존차량의 풍향·풍속계



신규차량의 상부 구조물을 접었을 때의 모습



재해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헬륨 적재 시스템 혁신

고층 관측을 위한 헬륨가스 운반 및 적재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으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예방 대책 기준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KGS GC207)을 반영했다. 전용 상하차 리프트를 장착하여 헬륨가스 용기를 안전하게 적재하고, 용기를 적재함에 고정해 입식 상태로 보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차 리프트를 이용한 헬륨가스 운반(왼쪽)과 입식 보관(오른쪽)

극한 환경 대응과 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내부 개선

기존차량은 대설, 호우, 강풍 등 재해기상 상황에서도 고층 관측 준비와 데이터로거 점검을 트렁크나 차량 지붕 등 외부에서 수행해야 했다. 이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차량의 내부를 다음과 같이 구축했다.

① 실내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 구축

탑승석 가운데 테이블을 설치하여, 악천후와 관계없이 차량 내에서 관측 준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노트북



사물함에 설치된 데이터로거

재해기상 연구를 위해 도로를 누빌 연구용 기상관측차량

② 데이터로거 접근성 개선 및 운용 편의성 증대

기존에 지붕 위에 있던 데이터로거를 사물함으로 옮겨 지붕 위로 올라가는 위험한 작업을 제거

하고, 물품 정리를 위한 사물함을 추가했으며, 탑승 인원을 최대 4인(기존 2인)으로 확장했다.

③ 장기 관측 안정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국립기상과학원은 신규차량 도입 이후에도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비교관측 중 에어펌프 고장으로 상부 마스트가 접히거나 관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트 리프트에 고정 장치를 장착했고, 현장 관측에서 장비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강화했다.

신규차량은 기존차량의 대체품이 아닌, 지난 12년 동안 쌓인 재해기상 현장 경험과 안전 기준이 결합된 차세대 이동 관측 플랫폼이다. 자동화된 마스트 시스템, 향상된 데이터 정확도, 강화된 안전 기준 준수, 사용자 중심의 실내 환경은 극한 환경에서의 관측 임무 수행에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재해기상 연구와 현장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신규차량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2월, 회고와 준비의 달

박재용 작가



2월입니다. 영어 'February'는 라틴어 '페브루아리우스(Februarius)'에서 유래한 단어지요. 고대 로마에선 해마다 2월 15일에 팔라티노 언덕의 루페르칼 동굴에서 루페르칼리아(Lupercalia) 축제를 열었습니다. 암늑대가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에게 젖을 먹여 키웠던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다가올 한 해의 건강 증진과 지나간 한 해의 부정한 것에 대한 정화를 기원하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페브루아리우스'도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 '페브로아레(februare)'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지나간 해에 돌아간 이들을 추모하고 속죄하는 의미도 담겼다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왜 2월에 새해의 건강 증진을 기원하고 지난 한 해에 대한 정화를 기원했을까요? 고대 로마에선 3월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화가 섞여 있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름이 붙은 달이 3월에서 12월까지 열 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명칭 대부분이 이때 붙여진 이름에서 유래하죠.

3월은 봄을 알리는 달이죠. 이때를 한 해의 시작이라 여긴 고대 민족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춥고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풀리고, 새 풀과 잎이 돋는 시기에 한 해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또 농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시기이지요. 이때 여러 농사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 새겨져 있을 것이니 이때의 달력이 촘촘할 수밖에요. 하지만 농사를 끝내고 긴 휴식에 들어가는 겨울은 한가한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를 기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겨울의 동지는 꽤 중요했고 기념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12월의 일이니까요. 동지 이후의 두 달가량은 밤이 차츰 짧아지고, 봄이 오길 기다리는 침잠의 시기였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달력과 실제 시간이 맞지 않는 걸 수정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원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2422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360일로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0일짜리 달 열두 개면 깔끔했겠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 윤년이 들어가고, 윤달이 들어가는 등 달력이 깔끔해지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선 이름이 붙지 않은 60여 일가량을 이용해서 이를 조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 초기 로마 제정 시기의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두 번째 왕인 누마가 1월과 2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1월이 새해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1월을 뜻하는 'January'는 로마의 신 야누스 (Janus)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 출입구, 시작과 끝의 신이지요.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역할로 딱입니다. 그리고 2월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화를 위한 달로 여겼기에 페브루아레에서 유래했고요.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짧은 것도 이렇게 다른 달이 다 있은 뒤에 생겨난 달이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이미 있었고, 각 달의 날도 정해져 있었지요. 365일 중 남은 날은 59일입니다. 1월을 30일로 삼고 2월을 29일로 삼는 방법도 있었지만, 고대 로마에선 1월을 31일로 삼다 보니 2월은 28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선 홀수 달을 길한 달로 여기고 짝수 달은 흉한 달로 여겼기에 1월의 날을 늘리고 2월을 줄인 거라고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2월은 웬지 마음이 급하고,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의 마음도 그렇지요. 예전에는 봄방학이 따로 있어 2월은 학교를 가다가 다시 쉬었지만, 방학이라 여기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참 지나, 이제 아이들도 서른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도 뭔가 바쁜 달이네요. 작년에 대한 회고와 새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진했다면 2월에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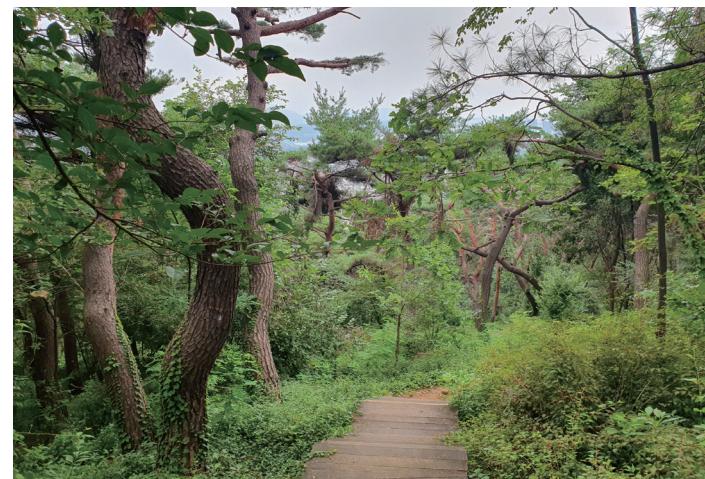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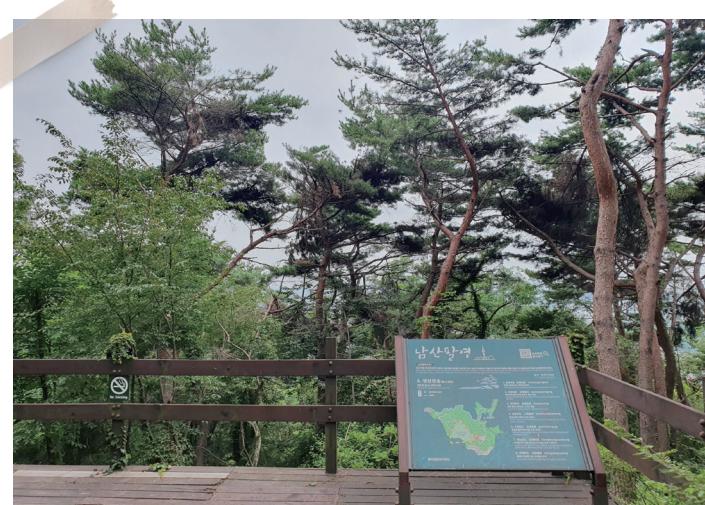
봄을 기다리는
2월 여행,
도심 속 소나무숲 산책로

박은하 여행작가

눈꽃도 지고 벚꽃도 먼 2월입니다. 이맘때쯤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를 물어보면 참 난감합니다. 봄도 아닌 겨울 끝물, 한파와 건조가 이어지며 눈보라가 불쑥 찾아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이럴 땐 서울 남산 소나무숲처럼 도심 속 숲길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피톤치드 가득한 길을 산책하며 기지개를 켜보세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 가사에 등장하는 그 소나무가 정말 남산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실제로 남산에는 조선시대부터 보호되어 온 소나무 숲이 있어요. 남산공원 남측의 이태원과 국립극장 방향에 자리한 소나무숲 탐방로와 북측의 석호정과 동대입구역 방향에 있는 소나무 힐링숲이 그 주인공입니다. 흔히 남산에 가면 남산타워만 보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나무숲 탐방로와 소나무 힐링숲도 함께 들러보세요. 두 숲은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남산 남측순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된 소나무숲 탐방로를 찾았습니다. 빠빠하게 들어선 소나무가 푸른 향기를 내뿜고 있어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원목 선베드와 테이블 등 쉼터가 있어 자유롭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어요. 케이블카나 순환버스를 타고 지나치기만 했던 곳에 깊고 조용한 숲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책로는 완만한 경사로 시작해 숲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키 큰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은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소나무숲 탐방로는 남산의 허리를 감싸듯 이어지고, 걷는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소나무의 생명력이 새삼 다가옵니다. 척박한 도심 한가운데서 겨울에도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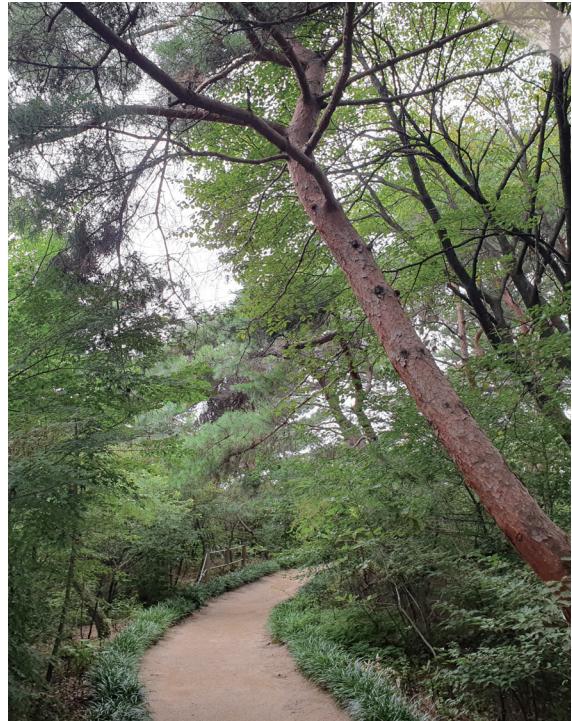


남산 소나무 힐링숲으로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남산 북측순환로 입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석호정 인근에 소나무 힐링숲이 나옵니다. 이곳은 한때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했다가 2023년부터 연중 상시 개방 중이에요. 이 산책로는 약 600m 길이로 이어지는데요. 명상 데크와 파고라 등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니 소나무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숲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상록 침엽수로, 척박한 산비탈이나 건조한 땅에서도 곧게 뻗어 자랍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잊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강인함과 절개를 상징합니다. 거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솔잎을 손끝으로 만지면 은은한 솔향이 풍겨옵니다.

남산의 소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변화의 흔적을 묵묵히 지켜왔어요. 조선 초 태종 11년(1411년)에 장정 3,000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로 식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양의 안산인 남산이 푸르러야 왕조가 태평하다는 풍수적 믿음에 따라 산 전체에 소나무를 심고, 산지기까지 둘 정도로 특별히 보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남산 소나무 숲이 대거 벌목을 당했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심어졌어요. 민족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산 소나무는 나라의 흥망과 애환을 함께 겪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해 왔어요.

남산 소나무의 역사를 알고 나니 소나무숲 산책길이 단순한 트레일이 아닌 뿌리 깊은 이야기를 품은 시간여행로처럼 느껴집니다. 봄을 기다리는 2월, 겨우내 켜켜이 쌓인 피로를 털어내고 남산 소나무숲에서 몸과 마음을 먼저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TIP 2월에 남산공원과 함께 가 볼만한 곳으로 조선시대 한옥 다섯 채를 옮겨와 복원한 남산골 한옥마을을 추천해요. 특히 설 연휴에는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끌나갈 무렵, 날씨와 마음의 속도

오현주 작가

우리는 1년을 365일이라고 부른다. 너무 익숙한 숫자다. 그런데 지구는 그 숫자에 꼭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태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데에는 달력에 담기지 않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약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 차이를 우리는 윤년이라는 하루로 받아들여 왔다. 서양에서는 그날을 'Leap day', 말 그대로 '폴짝 뛰어오르는 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인지 2월 29일에 태어난 아이의 생일에는 개구리 장식이나 복장을 하고 기념한다고 한다. 이름만 놓고 보면, 봄을 준비하는 개구리가 떠오른다. 하지만 막상 2월의 공기는 여전히 매섭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찬 공기에 얼굴을 감싸게 되고, 시린 손끝에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민다.



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과 대기 순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같은 전망 안에서도 월 내 기온 변동성은 여전히 크고, 찬 대류성 공기의 유입으로 한파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 또한 남아 있다.¹⁾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계절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느끼는 시간은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 듯하다. 몸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고, 하루의 컨디션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

계절이 먼저 움직이고, 몸과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런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간극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온전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느끼는 이 감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지 선뜻 구분하기 어렵다.

- 1) 기상청. (2025.11.24.). 2025~2026년 겨울철(12~2월) 기후전망. https://www.weather.go.kr/w/repository/xml/fct/mon/fct_mon3_108_cmt_20251124.pdf
- 2) Friston, K. (2010). The free-energy principle: A unified brain theory?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2), 127-138.
- 3) Clark, A. (2013). Whatever next? Predictive brains, situated agents, and the future of cognitive scienc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6(3), 181-204.

사람의 뇌는 환경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율하려 한다. 날씨, 빛, 온도 같은 환경의 신호를 바탕으로 오늘의 컨디션과 마음 상태를 미리 짐작한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러한 작동 방식을 ‘예측 처리(predictive processing)’라고 부른다.^{2) 3)}

이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때는 하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2월의 날씨는 이 예측을 자주 빗나가게 만든다. 아침에는 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다가도, 낮에는 햇볕이 포근하게 내려앉는다. 이렇게 체감이 달라지는 날씨 속에서 몸은 잠시 느슨해졌다가, 이내 다시 움츠러든다. 이 리듬이 반복될수록 마음도 안정될 틈을 놓친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컨디션이 들쑥날쑥해지는 이유다.

물론 날씨가 곧바로 기분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기온, 일조, 강수, 기압 같은 기상 요인들이 일상적인 정서 상태와 피로감과 연관되는 패턴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⁴⁾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 자체가 몸과 마음에 부담으로 쌓이기 쉽다.

하루 안에서도 여러 번 달라지는 날씨는 자율신경계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 몸은 긴장과 이완을 오가고, 그 과정에서 피로가 서서히 누적된다.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이를 ‘알로스탈릭 부하(allostatic load)’라고 부른다.^{5) 6)} 변화에 맞추어 조절하려는 시도가 늘어날수록, 몸과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계속 소모된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도 흔들리기 쉽다. 결정이 쉽게 서지 않고, 이미 내린 선택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확신은 줄어들고, 자꾸 망설여진다. 하지만 이런 흔들림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피로와 휴식 같은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⁷⁾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잠시 미루도 괜찮게 해주는 여지다.

2월에는 무언가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흔들림을 없애려고 다크치기보다, 아직은 속도가 맞춰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쪽이 마음을 덜 소모시킨다.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2월, 마음도 아직 겨울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위에 봄을 재촉하듯 성급히 얇은 옷을 덧입히면, 오히려 더 추워질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는 “이제는 나아져야 해”라는 말보다, “아직은 이럴 수 있어”라고 조용히 다독여 보면 어떨까. 지금의 갈피 없음은 멈춤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기 전 잠시 호흡을 맞추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개구리처럼 뛰어오르는 ‘풀짝 축제’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속도로 봄을 준비하는 당당한 2월이 되기를 바란다.



- 4) Denissen, J. J., Butalid, L., Penke, L., & van Aken, M. A. (2008). The effects of weather on daily mood: A multilevel approach. *Emotion*, 8(5), 662–667.
- 5) McEwen, B. S. (1998). Stress, adaptation, and disease: Allostasis and allostatic loa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40(1), 33–44.
- 6) McEwen, B. S., & Wingfield, J. C. (2003). The concept of allostasis in biology and biomedicine. *Hormones and behavior*, 43(1), 2–15.
- 7) Danziger, S., Levav, J., & Avnaim-Pesso, L. (2011).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17), 6889–6892.



날씨 뒤에 숨은 계산들 에너지도 날씨를 읽어야 한다

차기영 전기신문 기자



“이번 주 기온은 얼마나 떨어지고, 한파는 며칠이나 갈까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에너지 현장에서 자주 오가는 질문이다. 얼핏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이 한 문장 뒤에는 전력과 열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계산표가 숨어 있다. 추위가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를 취재하면서 날씨가 더 이상 계절의 배경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한파나 폭염 예보가 나오면 열과 전기의 운영 계획이 동시에 바뀐다. 사회 인프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예보에서부터 시작된다. 날씨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는 그 신호에 맞춰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제는 이 준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맞아야 하는 자원이고, 열은 일정 부분 저장이 가능하지만 수요를 내다보고 미리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긋나면, 비용과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 남는다. 그래서 에너지 현장에서 날씨 예보는 단순히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가리는 자료를 넘어 하루하루의 운영 조건으로 작동한다.

더 어려운 점은 이 계산의 전제가 되는 날씨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불규칙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상청이 113년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1°C 씩 상승했다. 1910년대 12.0°C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 13.9°C 로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C 로 상승 속도도 더 빨라졌다. 오르는 폭도, 속도도 예전과는 다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폭염과 열대야다. 1910년대 폭염일수는 평균 7.7일, 열대야일수는 6.7일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각각 16.9일과 28.0일로 늘었다. 밤에도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에너지 현장에서는 이 말이 곧바로 ‘밤에도 전력 수요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바뀐다.



지난여름이 그랬다.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C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의 열대야일수는 46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이런 여름이 오면 전력당국이 보는 것은 최고기온 하나가 아니다. 더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 며칠이나 이어질지, 밤 기온이 얼마나 내려갈지가 모두 전력수급의 변수로 들어간다.

실제로 전력수요의 고점은 더위와 함께 높아졌다. 2015년 8월 최대전력이 76.9GW였던 반면, 2024년 8월에는 97.1GW까지 올라 10년 만에 20GW 이상 늘었다. 폭염일수가 길어질수록 전력 피크가 치솟는 장면도 반복됐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변화가 더해지면서 날씨가 갖는 무게는 한층 커졌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더위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태풍이나 호우로 공급 여건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가 날씨에 더 민감해진 상황에서 예보의 정확성과 세밀함은 사실상 하나의 자원에 가까워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도 다르지 않다. 설비를 늘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그 설비를 언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날씨 예보가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예보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상정보는 맞히는 예보를 넘어 미리 준비하게 하는 예보가 돼야 한다. 극한현상은 더 잦아지고,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예보는 생활 편의를 넘어 사회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기상청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난 대응 강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상·기후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배경이다. 일사와 바람 예측자료, 재생에너지 자원지도와 플랫폼 구축은 날씨 변동성 속에서도 전력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날씨는 예보되고, 에너지는 그에 맞춰 준비된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 준비의 밀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좌우 한다. 내일의 하늘을 제대로 읽는 일이 결국 내일의 사회를 지키는 일로 이어진다.





지구를 사랑한 천리안위성



이지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누군가를 짹사랑하는 마음을 먼 우주에서 지구 주위의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에 비유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처럼 우리나라 기상위성 '천리안'은 지구만을 바라보며 365일 쉼 없이 관측한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지구를 담은 특별한 천리안위성 영상들과 그 안에 담긴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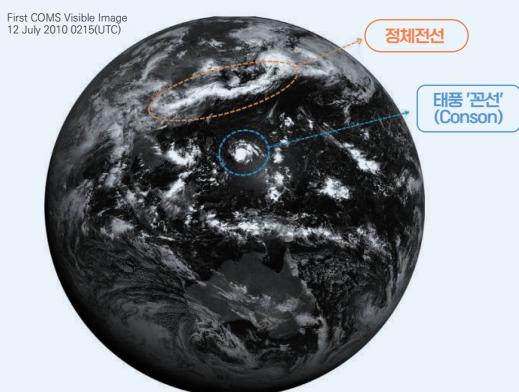


• 천리안위성은 노래합니다 •

너가 지구라면 나는 아마 인공위성 / 다가가지 못한 채 주위를 맴돌며 (노래: Elwin, 곡명: 인공위성)
저 방향으로 /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 네 걸음을 떠나닐게 / 인공위성처럼 (노래: 930, 곡명: 인공위성)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천리안위성이 떠오릅니다. 동경 128.2도, 적도 상공 약 36,000km의 정지궤도에 있는 천리안위성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주기로 공전합니다. 아무 대답을 얻지 못해도 오직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보내는 존재. 어쩌면 그 모습이 짹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의 마음과 참 닮아있어요. 오늘도 묵묵히 먼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천리안위성은 구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대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구의 세세한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천리안위성의 모습은 좋아하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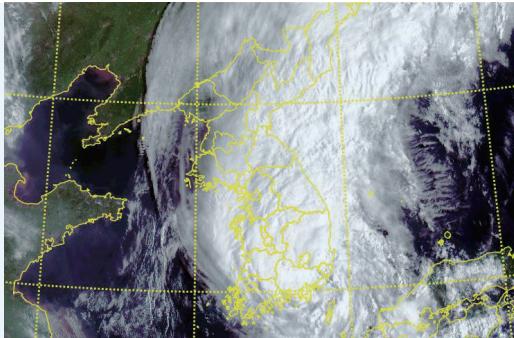
• 천리안위성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지구는요… •



천리안위성이 처음으로 본 지구 모습

천리안위성 1호 관측(2010.7.12.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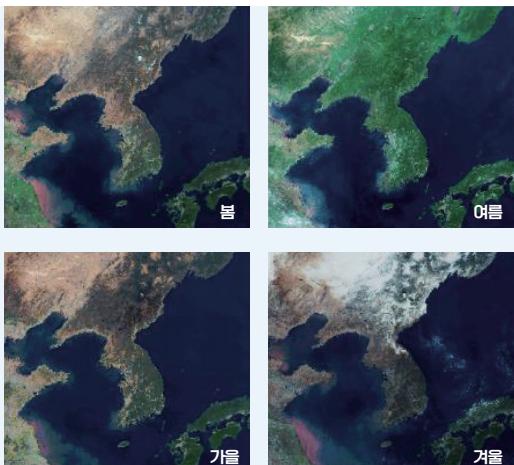
2010년 6월 27일 우주로 향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가 처음으로 관측한 지구 모습입니다. 4개의 관측 채널 중 가시채널에서 관측한 영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발생한 정체전선과 필리핀 부근에 있는 태풍 '꼰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1년 4월 1일부터 천리안위성 1호 정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구 모습을 관측한 이와 같은 자료를 3시간마다 제공하게 되었지요.



태풍 '카누' 한반도 상륙

천리안위성 2A호 관측(2023.8.10. 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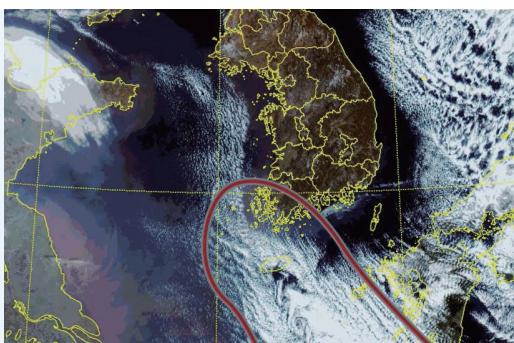
2023년 8월 10일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카누'은 한반도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한반도 남북을 종단하는 특이한 이동경로를 보였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천리안위성 2A호는 2분마다 집중적인 특별관측을 수행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풍 분석과 예보 지원, 방재 대응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천리안위성 2A호 관측(2020.1.1.~12.31.)

2020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계절과 식생 변화를 관측한 영상이 국가기상위성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영상 중 2021년 조회 수 1위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이 영상에서 초록으로 가득한 한반도부터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 하얀 눈이 덮인 장면까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리안위성 2A호는 기상현상 관측자료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감시와 연구에 필요한 위성자료를 생산합니다.



제주도 해상에 발생한 카르만 소용돌이 관측

천리안위성 2A호 관측(2025.2.18. 10:00)

지난해 2월, 천리안위성 2A호가 제주도 해상에서 자연이 만들어 낸 신비로운 카르만 소용돌이를 관측했어요. 카르만 소용돌이는 방향이 일정한 강한 바람이 높은 산을 포함한 섬을 지나갈 때, 공기의 흐름에 따라 좌우로 번갈아 회전하는 소용돌이 구름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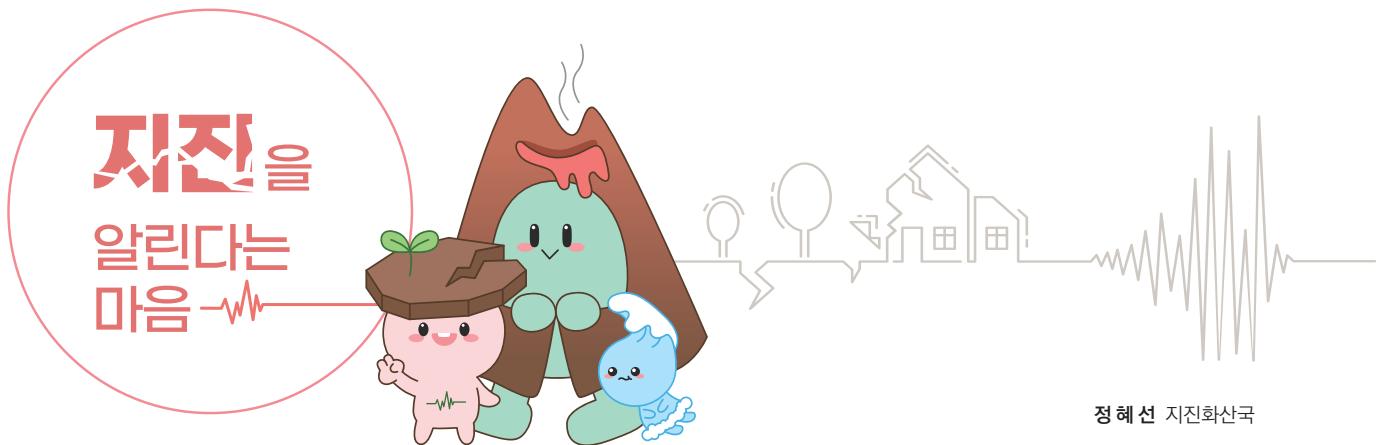
● 언제까지나 너의 위성이야 ●

.....

말없이 멀리서 지켜보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천리안위성은 지구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험기상을 빠르게 읽고 넓은 범위의 변화를 탐지해서 다양한 기상과 기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천리안위성은 이 순간에도 지구를 바라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하듯이, 언제까지나 지구를 사랑할 위성이니까요.

I spin around you just like a satellite. / I'm a satellite of you.

위성처럼 너의 주변을 둘지/ 나는 너의 위성이야 (노래: 수지, 곡명: satellite)



정혜선 지진화산국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에 입사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과학적 원리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으로 현장을 오가고, 한 편의 콘텐츠를 위해 며칠씩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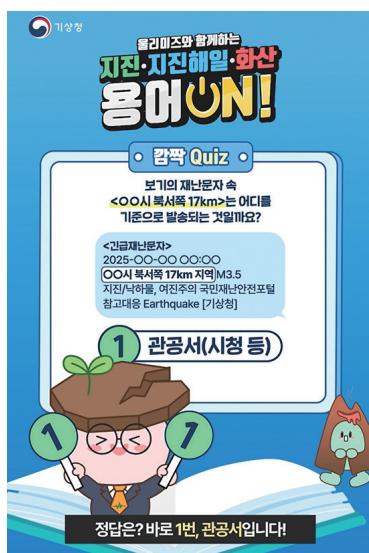
Ep 1 홍보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인턴을 막 마치고 기상청에 입사한 나는, 홍보 업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과학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흥미를 느낄지 재미를 중심으로 고민하며 일해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지진을 주제로 한 홍보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재난을 소재로 다룬다는 것은 흥미나 재미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카드 뉴스, 솟품부터 토크콘서트, 공익광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진이 무엇인지,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리고 있지만, 매번 조심스러워진다. 이 일을 하며 ‘홍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5 지진과학정책 토크콘서트(사진 위)
유튜버 '딥'과 함께한 지진 공익광고 촬영(사진 아래)



어르신의 질문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솟품

Ep 2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기까지

콘텐츠는 ‘소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학교 시절 사용하던 지질학 전공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현장에서 받은 질문이 새로운 주제가 되기도 한다. 어느 박람회에서 한 어르신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지진 재난문자에 나오는 ‘OO쪽 OOkm’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순간, 나 역시 입사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몰랐던 부분이기에 국민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 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질문은 지진 재난문자 문안의 기준을 설명하는 솟풀이 되었다. 소재가 정해지면 자료를 모으고 구성안을 만든다.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하거나 공간을 촬영할 일도 많다. 가끔은 나의 뒷모습이 콘텐츠에 출연하기도 한다.



‘탐험 ON 윤리미즈’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편)에
나온 나의 뒷모습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검토가 시작된다. 지진 콘텐츠에서는 이런 피드백이 자주 오간다. “캐릭터가 너무 즐거워 보이니 진지한 표정으로 바꿔주세요.” 이 문장에는 재난 콘텐츠가 가져야 할 태도가 담겨있다.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단어 하나부터 조사까지 여러 번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완성할 때마다, 재난을 홍보하는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Ep 3 전국을 다니며 알게 된 것들

경기도에서 태어난 나는, 입사 전까지 KTX를 탈 일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대구와 대전, 부산과 정읍 등 여러 지역에서 지진정책을 알리기 위한 버스를 운영하며 돌아다닌 덕에, 서울역 1호선에서 어느 길로 가야 기차를 빨리 탈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지하철 첫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역은 역시나 분주하다. 기차로 2시간 걸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도착했다. 기상청은 매년 9~10월에 ‘지진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연계해 지진홍보부스를 마련했다. 버스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상식 퀴즈를 배치하여 정답을 맞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기상과학관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퀴즈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문제들을 곧잘 맞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막연히 떠올리던 초등학생의 수준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연령대로만 구분하여 홍보의 나이도를 맞출 필요 없이, 오히려 개인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기준으로 한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와 같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은, 앞으로의 지진 홍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름이 되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물들



세계기상의 날 지진홍보부스(대전)



기상기후산업대전 지진홍보부스(부산)



지진안전캠페인 부스(국립대구기상과학관)



지진안전캠페인 부스(국립전북기상과학관)

Ep 4 홍보 그 이상의 의미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지진을 홍보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많은 이들이 기상청을 ‘날씨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상청은 날씨뿐 아니라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며, 지진 발생 시 단 몇 초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지진을 알리는 일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지진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한다.

첫 출근날! 복사기도 나보다 똑똑했다

기상청 임용 직후 함께한 부산지방기상청 워크숍 동행부터
24시간 관측 현업 업무까지, 모든 실수는 배움으로,
모든 긴장감은 업무의 성장으로 끌어낸 부산지방기상청
입사기를 소개합니다.



정호재 부산지방기상청

첫 출근, 부산청에서의 하루

꿈에 그리던 기상청 공무원으로서 첫 근무를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첫 출근 후 임명장을 받고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 앉은 순간, 비로소 “정말로 기상청 공무원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제공받은 새싹 지침서와 사무분장표, 신규자 교육자료를 읽고 팀원분들께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업무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후 현업 근무를 위한 건강검진을 받고, 관측 현업 근무를 보조하고 배우면서 현업에 투입될 준비를 했다. 앞서 받은 교육과 지침서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첫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워크숍이 알려준 나의 역할

임용 직후 좋은 기회로 부산청 혁신·소통 워크숍에 참여했다. 과별로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업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팀은 ‘청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맡아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고, 감사하게도 1등 상을 받았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직 생활과 업무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연스레 풀어볼 수 있었다. 뒤이어 방문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서는 바다 날씨와 해양 기상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관측과 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고, 관측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에 한층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복사기는 척척, 옆에선 차근차근

관측 현업 근무를 시작하고 처음 맞닥뜨린 상황은 ‘파고부이 위치이탈’ 보고였다. 주간근무 중 기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MTMS)에 파고부이 위치이탈 알림이 떴을 때, 즉시 조치해야 했지만 처음이라 어디에 연락하고 어떤 절차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바로 옆에서 수많은 문서를 척척 뽑아내는 복사기를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당시 하나하나 찾아보며 해결했던 경험이 지침서와 매뉴얼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해서 이를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장답사에서 보고 느낀 관측실황

현업근무에 적응해 갈 무렵, 하반기 영향예보 현장답사에 참여했다. 그동안 전산으로만 접하던 관측장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각 관측지점은 관측환경이 잘 관리되고 매우 깨끗했지만, 이물질에 민감한 센서인 시정현전계 근처에 얇은 거미줄 한 가닥이 날리고 있었다. 이를 보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물질로도 오자료가 날 만큼 센서는 민감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수동품질관리 업무를 할 때 장비의 한계와 환경요인을 더욱 세심히 고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부산지방기상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의 장비관리와 수동품질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모든 실수는 배움으로!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신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침과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워크숍, 현장답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가 주어져, 내가 잘 하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점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었다. 아직 복사기처럼 빠르게 문서를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의 배움과 성장을 통해 복사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산지방기상청의 일원이 되리라 믿고, 앞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늘과 맞닿은 하얀 백록담으로



함박눈을 기다리는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세 가지가 떠오른다. 겨울방학 이른 아침에도 눈을 번쩍 뜨게 하던 ‘눈 왔다’는 엄마의 목소리, 고등학생 때 배웠던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그리고 한라산이다. 어느 날 잡지 속에서 보았던 사진-새파란 하늘을 향해 알록달록한 등산객들이 하얀 능선을 오르던-의 강렬한 보색대비에 인(印)이 박인 듯, 그때부터 한라산 눈꽃산행은 나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다. 겨울이면 떠오르고, 눈이 내리면 더욱 생각나는 산이 되었다.

4주기 근무와 다이아 산행의 기억

예보 교대근무가 4일 주기로 운영되던 시절, 총괄예보관실2과는 매월 등산을 했었다. 과장님과의 등산? 그것도 휴일에? 과거나 지금이나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역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등산을 좋아했고, 부서원들도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잘 맞았다. 특히 도봉산과 수락산을 뒷산처럼 다니시는 과장님 덕분에 계절에 따라 여러 등산로로 봉우리마다 다녀보며 ‘그때 그 산’이 아닌 ‘오늘도 새로운 산’을 마주했다. 아마도 서울 근교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산들은 대부분 가보지 않았을까? 거기다 계절에 따라 핫(hot)한 산을 골라 원정 가기도 했으니, 남양주 천마산에서는 귀한 야생화를 봤고, 흥천 팔봉산 등산은 암릉을 오르내리는 극기훈련이었으며, 눈이 소복이 내린 대관령 겨울 산행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남양주 천마산



대관령 선자령



속초 설악산

산에서는 일상의 평범한 날씨들이 특별해진다. 봄이 되고 추위가 풀려 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리는 진달래가 반갑고, 하늘에 둉둥 떠 있는 뭉개구름이 햇빛을 막아주니 고맙다. 잠깐의 휴식에 물 한 모금 마시며 맞는 산바람은 또 얼마나 시원하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등지고 나눠마시는 커피의 온기는 어찌나 정겨운지... 평면에 그려진 일기도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당시 나는 사회 초년생에 예보 경험도 적어서 버텨내는 것이 목표였던 미생이었지만, 다이아*(◆, 쉬는 날) 산행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계절의 변화를 직접 겪으며 자연스럽게 기상청 업무에 스며든 듯하다.

*기상예보 교대근무표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주말과 같은 날이 다이아(◆)로 표기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산은 없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그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기상과 기후다. 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날씨에 따라 풍광이 달라진다. 기상현상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에 사뭇 새롭다. 설악산에는 동해안의 짙은 해무가 밀려들고 바위능선을 넘으며 구름폭포가 쏟아진다. 스멀스멀 다가오는 해무의 움직임이 마치 구렁이 담 넘듯 살아 있는 생명체 같다. 반대로 한라산 윗세오름에서는 낮은 구름이 거세게 밀려들어 채찍질하듯 시야를 가리다가도, 한순간에 바람이 잦아들면 철쭉이 만개한 선작지왓을 보여준다. 또, 과냉각된 빙방울은 지면에 닿으면 도로살얼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태백 함백산의 나뭇가지에 닿으면 얼음코팅이 되는 ‘무빙(rime)’이 형성돼 사방으로 헛빛이 반짝이는 겨울왕국이 연출된다. 산에서 맞는 저녁은 또 어떤가. 겹겹이 서 있는 산들은 깊은 바다처럼 깊이 깊이 어두워져 가고, ‘하늘색’을 정의할 수 없게 다채로운 색이 번지는 하늘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노을 맛집!



한라산 백록담과 선작지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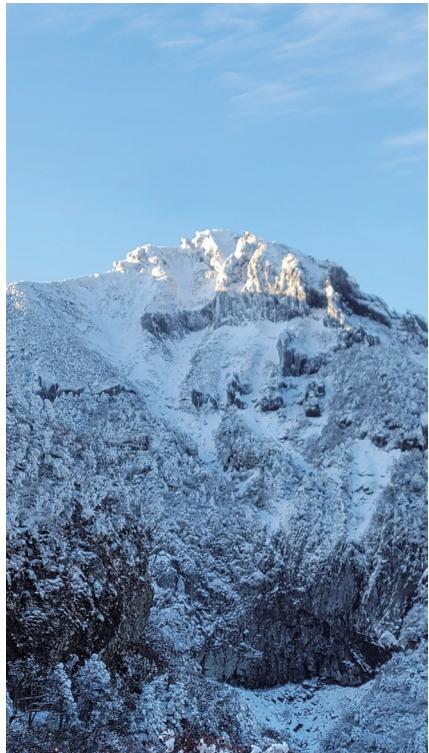
한라산 백록담

반쪽 제주도민의 한라산 바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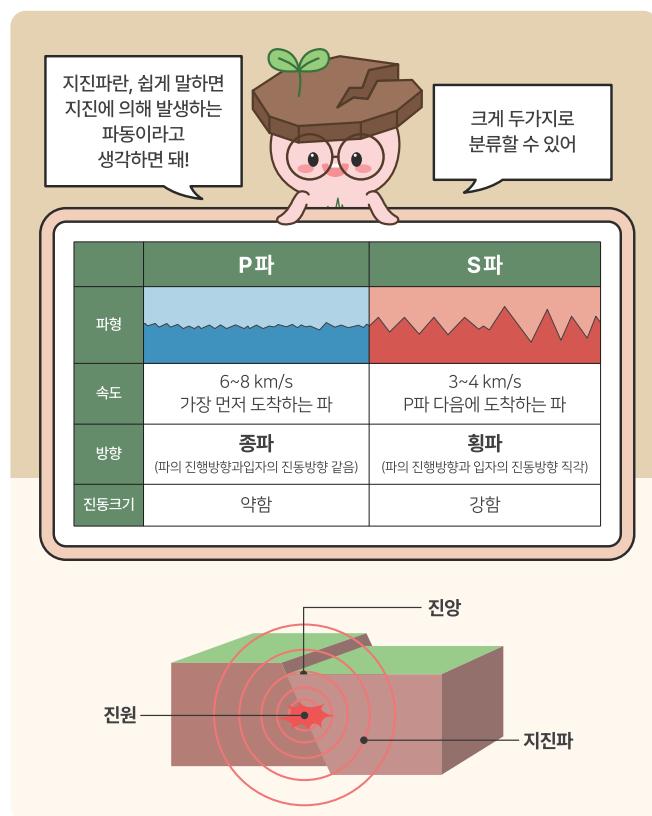
산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은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부서가 바뀌고, 출산과 육아를 하며 내 등산화는 신발장 밖으로 나올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에 제주지방기상청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옳다구나! 드디어 버킷리스트에 모셔져 있는 한라산 백록담 눈꽃산행을 해 볼 기회구나 싶었다. 더구나 제주청에서는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 자동기상관측소(AW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한라산 고산지대의 기후변화 특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1,909m)을 매분 연속 관측하는 지점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 관측장소에도 가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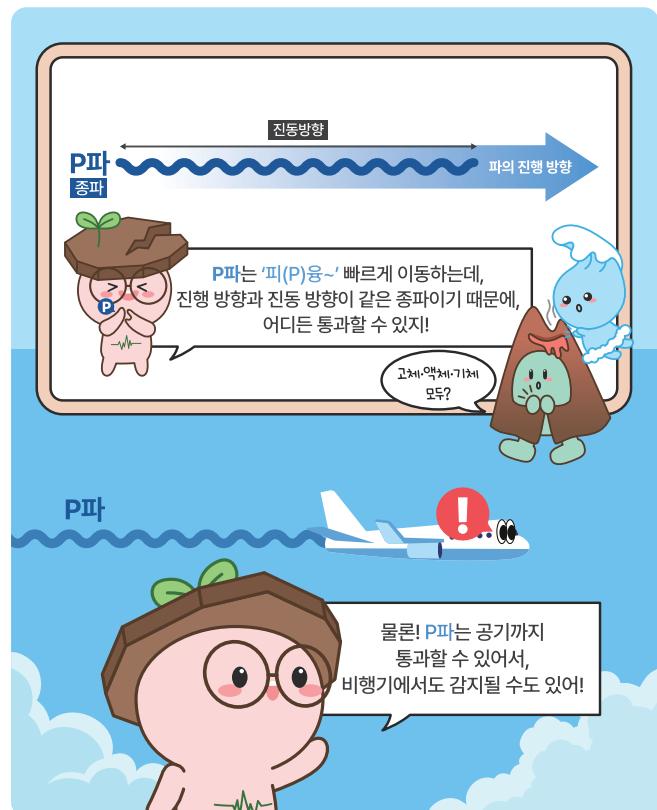
12월이 되니 한라산은 어김없이 내린 눈으로 하얀 설산이 되었다. 이제 지척에 있는 한라설산을 오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제주도민이 되고 해가 바뀌도록 아직 버킷리스트에 머물러 있다. 휴일이면 아이들을 돌보려 육지로 가는 ‘주말 엄마’의 삶을 사느라 평일 제주도에서는 공항-청사-관사의 삼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산의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부디 반쪽 제주도민에게도 설산이 꼭 한번은 허락되면 좋겠다.

백석 시인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사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고 했다. 나도 한라산을 사랑하고 그리운 옛 선배와 동료들이 보고 싶어 마음이 가난하니, 언젠가 좋은 날에 눈이 푹푹 나려주길, 그래서 다이아 산행의 멤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한라산에 오를 수 있기를... 하늘과 맞닿은 하얀 백록담을 마주하는 그날을 조용히 소망해 본다.



Theme Story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2026년도 기상청 시무식 (1월 2일)



기상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도 기상청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업무유공자 포상 수여 및 신년사를 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미선 기상청장, 신년 맞아 현충원 참배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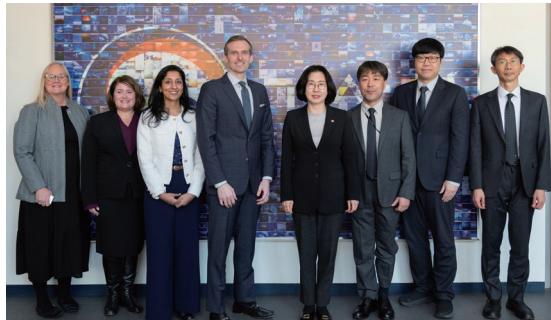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 청장은 참배 후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방명록에 담았다.

기상청 및 산하 공공기관 중점 추진과제 보고 (1월 14일)



기상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미선 기상청장,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협력 논의 (1월 19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차관보(Taylor Jordan)와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2025년 태풍 현황과 분석 쇼츠



2025년 태풍이 비껴간 이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풍 #태풍경로 #날씨기록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보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X(트위터)

x.com/kma_skylove





임동열

갈대는 언 땅의 끝자락을 붙잡고 서 있고, 하늘을 반만 덮은 구름은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듯 흘러갑니다. 차가움과 온기가 서로 양보하지 않은 채 잠시 공존한 하루였습니다.



박은빈

2026년이 밝았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해돋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향숙

강릉 경포 해변의 아침 풍경! 바다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아침의 고요함과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곳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정말 소중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 장서하

동해안으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구름에 비친 태양의 무지갯빛과 구름의 형상이 아름다웠습니다.

▣ 강석정

천사의 날개처럼 보이는 저녁 하늘의 구름을 보며, 2026년에는 이 하늘만큼이나 모두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길 조용히 바라봅니다.



▣ 김동석

하늘을 향해 곤게 뻗은 나무가 노란 잎으로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쏟아지고, 숲은 마치 한 계절의 절정을 선언하는 듯합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2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을 타려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려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2026 문화 누리 카드



문화누리

0000-2034-5678-0000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 주민센터·온라인 발급기간 동일(2026년 11월 30일(월) 18시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1인당 연 15만 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 :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

※ 추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ARS(☎ 1544-3412) 재충전 가능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한파행동요령



한파 주의보

-12°C 이하

한파 경보

-15°C 이하



기상 상황 확인하기



야외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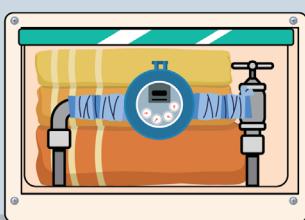
모자

장갑

목도리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관 동파예방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행정안전부